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워야할 시간인데,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워 저서, 상대방이 겁이난 적이 없습니까?

숨겨진 폭력!

# DATE D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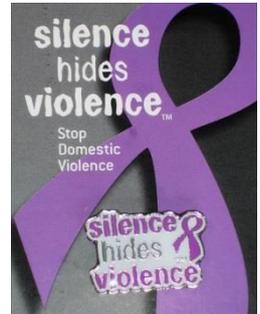


.....데이트 DV 와, 연인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힌트.....

## 1 데이트 DV 란?

교제중인 남녀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데이트 DV」라고 합니다. 진짜는 싫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참거나 「나한테 의지하는 증거」로 해석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데이트 DV」라고 하는 폭력입니다.

- 못생겼다 · 똥보 · 멍청이 · 무능한 사람등으로 때때로 얘기한다.
-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한다.
- 이메일 이력을 체크당하거나, 행동이나 친구와의 교제를 제한당한다.
- 저금한 돈을 마음대로 빼내거나, 무리하게 돈을 쓰도록 강요
- 무리하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거절해도 응하지 않는다.



## 2 데이트 DV 가 일어나는 이유

- 안절부절기 :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를 「나만의 것」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지배」하려고 해서 폭력으로 변한다.
- 폭발기 : 일단 자배하는 쪽, 당하는 쪽의 관계가 성립하면 폭력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진다.
- 러브러브기 : 폭력이 멈추고 친절하게 대하면, 「폭력이 아니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 3 좋은 관계로 돌아보기 위해서

- 당신과 연인과의 사이에 폭력이 숨겨져있지 않는지 두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폭력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합니다.
  - 폭력문제를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말고 「도와달라」고 SOS 를 요청할 것등이 중요합니다.
- 친한 사람에게 상담하기 어려우면 전문창구에 상담합니다. 비밀은 지켜줍니다.

With You 사이타마	TEL.048-600-3800	월~토	10:00~20:30
부인상담센터	TEL.048-863-6060	월~토	9:30~20:30

☆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다」라고 자신을 주어로 해서 기분을 전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글 · FICEC 이사장 이시이나나에)

토다시에서 한국출신 스태프가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특별  
기고

##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일본어 —



인간은 누구나 차별받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차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혹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 차별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 모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사회적인 강자가 되면 약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한국의 [피너츠공주]가 좋은 예이다. [특별대우]라고도 하는 세상의 일반인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차별]이라는 감정은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권층의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생명, 생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강자란 누구이며, 사회적인 약자는 누구인가. [외국인의 인권]이라는 주제안에서 생각하면 일본의 국적을 가진 일본인은 강자이며. 외국인인 나는 물론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나"도 모국으로 돌아간 순간 강자가 되고, 일본인은 남의 나라에 발을 들인 순간,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 즉, 외국인의 차별문제는 타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나라의 사회적 강자에게 감사해야 한다.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그것은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내가 일본에 올 때 대학 교수님께서 [외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그 나라의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배워라]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태도가 바뀌며 반말부터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차별]이란, 언어에서부터 시작한다. 상대에의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일본에는 경어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 외국인들이 일부러 일본어의 반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된 일본어를, 차별받지 않기 위한 교양있는 일본어를 배울 곳이 더 많아진다면, 분명 더 정중한 일본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어의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글 · FICEC 스태프 안은주)



1 2 월 2 2 일,  
소바만들기 체험



1 월 1 2 일, 붓과  
먹으로가끼조메를 체험

### 3 월의일본어교실이벤트안내 「히나마쯔리」

3월3일은「히나마쯔리」。여자아기가 있는 집에서 오히나사마라는 인형을장식하고, 시로자케 (뿌영게 탁한 달작지근한 술), 히시모치(히시라는 나무열매로 만든 떡) 등을 올려놓습니다. 이 마쯔리는, 여자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마쯔리로, 이 시기는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복숭아 셋구」라고도 합니다.합니다.